불교와 과학, 현대사회 해법되길…



불교와 과학
앨런 월리스 편집
박재용 옮김
운주사 / 3만8천원



세계 석학들 불교철학과 현대과학 접점 탐구
두 세계관의 융합과 상호 보완의 방법 모색해
달라이 라마 진행 '마음과 생명 컨퍼런스' 후
참여 학자들 각자 주제 후속 연구 성과 엮어
"불교 · 과학 분야 상호비교 가능 부분 있어"
동양 오랜 지혜와 서양 첨단 과학이 빚어낸
新 패러다임 조명, 인식 넓히고 새 시각 제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전혀 다른 인식의 틀과 세계관을 가진 '종교'와 '과학'을 한 권의 책 속에 담을 수 있을까. 담는다면 어떤 것들을 담을 수 있을까. '텍스트'가 될 수 있을까. 불교와 과학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도출할 수 있는가?

책 〈불교와 과학〉(대원불교 학술총서)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철학자, 불교학자, 물리학자, 인지과학자들이 불교철학과 현대과학의 접점을 탐구하고, 두 세계관의 융합과 상호 보완의 방법을 모색한 책이다. 책은 두 세계의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자가 직면한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는, 나아가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텍스트이다.

책은 달라이 라마와 여러 과학자 그룹이 진행해온 '마음과 생명(Mind and Life) 컨퍼런스'의 대화 이후, 대화에 참여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후속 연구한 결실을 집대성한 것이다. 달라이 라마와 15인의 학자들이 참여해 불교철학과 현대과학의 정수를 아우르며, 서로 다른 세계관의 뿌리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했다.

불교와 과학이라는 두 주제를 한 권의 책 속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야가 상호 비교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교의 교리 및 실천과 과학의 이론 및 탐구 방식 간의 접점이 어떤 식으로든 유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교가 종교적 요소뿐만 아니라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요소까지 갖춘 종교이며, 신심(믿음) 등 종교적 요소와 더불어 과학적이기까지 한 실천방법 그리고 자신과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에는 교조적 신념보다 경험과 검증을 중시하는 오랜 전통도 있다. 불교의 이런 실증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이 과학과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전제에 대해 처음부터 진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불교와 과학 간의 교류를 반대하는 주장을 소개한 후에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종교와 과학이 독립적이고 그 관심 영역이 다르므로 서로 대화할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견해라고 밝혔다.

책은 불교가 현대 서양의 종교 개념에 의해 적절히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위의 주장에 답하고 있으며, 불교에서 과학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한다. 이어서 경험과학과 종종 이와 혼동되는 과학적 유물론의 형이상학적 도그마(dogma)를 구별한다. 다음으로, 불교와 과학은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지지자들의 반론에 대해서도 다룬다. 마지막으로 불교와 과학 두 분야를 풍성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자연 세계의 주관적, 객관적 영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양자 간의 대화를 제안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만들어졌다. 전체의 서론 부분에서는 불교와 현대과학의 비교 연구가 갖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밝힌다.

1부에서는 불교와 과학의 교류 가능성과 그 관계를 역사적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2부에서는 불교와 인지과학의 접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인지과학은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불교에서는 마음뿐 아니라 마음과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3부에서는 불교와 물리학에 초점을 맞춘다. 물리학은 자연과학 전체의 패러다임이므로, 불교와 과학에서 물리적 우주를 어떻게 탐구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들어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은 전통과학의 가정을 뒤흔드는 심오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불교철학, 특히 중관학파와의 대화에 적합하기 때문에 책에 실린 여러 글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책은 물리학자 피에트 헛의 글로 마무리되는데, 그는 학제 간 연구 성과에서 일어나는 여러 의문점들을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 해석한다.

책은 단순히 동서양 사상의 비교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정체성, 마음의 본질, 그리고 우주의 근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더 깊은 통찰을 이끌어 내는지를 탐구한다. 아울러 동양의 오랜 지혜와 서양의 첨단 과학이 만나 빚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명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불교와 과학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기획된 책은 여러 분야의 학자뿐만 아니라 동서양간 대화 및 과학과 종교의 접점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새로운 통찰과 함께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교와 과학이 함께 인간의 정체성, 마음, 그리고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러 방법들을 조명함으로써 인류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와 실천 과제들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저자 앨런 월리스는 학제 간 의식 탐구 연구소(Institute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Consciousness)의 설립자 겸 소장이다. 애머스트(Amherst)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했고 스탠포드대학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도와 스위스의 불교 사원에서 승려로 여러 해 동안 수행했으며, 1976년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불교 이론과 수행을 가르쳤다. 달라이 라마를 비롯해 수많은 티베트 학자와 수행자들의 통역사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과학과 불교의 실재 인식(Choosing Reality: A Buddhist View of Physics and the Mind)〉 〈The Bridge of Quiescence: Experiencing Buddhist Meditation〉 〈The Taboo of Subjectivity: Toward a New Science of Consciousness〉 등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까르마' 핵심을 탐구하다



까르마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지음
최경아 옮김
운주사 / 1만5천원

까르마 두 핵심 업보·윤회 의미
인도 여러 철학 학파 통해 분석
여러 학파 방법들 상세히 설명
까르마 연계 사상 현대와 연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지금과 같거나 더 나은 세상에서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업보윤회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분명 마음이 끌렸을 것이다.

책 〈까르마〉(대원불교 학술총서 20)는 언제부터인가 현대인에게 일상적인 단어가 된 '까르마'에 대해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을 탐구한다. '까르마'의 두 가지 핵심인 업보와 윤회의 의미가 인도의 여러 철학 학파에 의해 어떻게 기원되고 전개되고 통합되었는지 분석했다. 윤회와 업보에 있어 핵심 개념인 업, 즉 까르마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되는 것일까? 책은 까르마(업)라는 용어가 지니는 이중적 의미, 곧 윤회와 업보가 그 역사적·문화적 맥락의 중심에 있다고 봤다. 저자는 까르마라는 개념을 태동시킨 인도의 학파 하나하나, 특히 자이나교와 불교, 그리고 브라만교의 다양한 분파가 윤회와 업보를 진지하게 수용할 때 따라오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흥미롭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차이점을 조명했다. 책은 고대 및 고전 인도문화의 까르마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현대 서양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과응보'로서의 'karma'에 대한 것은 아니다.

책은 먼저 까르마에 있어 업보와 윤회라는 의미가 서로 얽혀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자이나교, 불교 및 브라만교의 여러 학파들이 개발한 다양한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는 이와 함께 업보윤회사상을 받아들일 때 수반되는 여러 다른 퍼즐들을 맞춰간다. 예를 들어 선행에 관한 치열한 철학적 논쟁으로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인과응보적 요소는 무엇에 의해 이끌리는가'와 같은 의문점에 대해 설명한다.

책에는 자이나교의 '부동(不動)의 고행'에 대한 설명에서 불교의 자아(무아) 개념에 대한 새로운 분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독자들은 까르마의 개념과 관련하여 브라만교의 여러 주요 학파들의 교리적 차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접하게 된다.

한편 책의 목적은 까르마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믿음과 개념에 대해 그 맥락적 이해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에 있다. 더 큰 복합 사상체계에 명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믿음과 개념은 저자의 최소한의 해석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책은 가능한 한 텍스트가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은 최대한 배제했다. 지나친 조력은 현대 서양이나 인도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일지라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으며, 실제로 한 현대 학자가 "까르마에 대한 현대의 사변적 해석"에 대해 경고한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책에서 보여주는 까르마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해설은 과거 남아시아인의 삶 속에서 까르마와 연계된 사상들을 생동감 있게 그려냄으로써 이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공업(共業)의 규모가 훨씬 더 확대된 현대사회에서 '까르마'의 업보윤회사상이 주는 의미 또한 훨씬 교훈적일 것이다.

저자 요하네스 브롱코스트는 1946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며, 암스테르담의 프레이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하다가 인도의 라자스탄 대학교와 푸네대학교에서 산스크리트, 빨리 문법을 시작으로 인도학 연구에 입문했다. 스위스 로잔대학교에서 산스크리트어 및 인도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로잔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그는 산스크리트 문법학, 언어철학, 인도철학, 베다학, 불교, 자이나교 등 인도학과 관련하여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냈다. 대표적 저서로는 〈Greater Magadha〉(2007)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까르마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까르마
'업보'와 '윤회'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까르마'에 대해 인도의 학파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을 명료하게 분석하였다.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지음, 최경아 옮김/신국판/무선/212쪽/값 15,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가피!
육자진언의 수행체계
'옴마니반메훔' 여섯 글자의 짧은 진언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염송하기가 용이하면서도 그 공덕이 커서 해탈로 이끄는 수승한 방편이다.
법장 지음/신국판/무선/324쪽/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